별들의 전쟁 'PGA 챔피언십' 관전포인트

지옥의 블랙코스 넘을 자…우즈냐? 켑카냐?

'7459야드·기준 파 70' 암흑의 코스
같은조 우즈-켑카, 대회 최대 승부처
메이저 우승 우즈, 2연승 자신만만
디펜딩챔피언 켑카, 유력 우승후보


우즈


켑카

목표는 같다. 단, 악명 높은 코스를 넘는 자만이 '메이저 왕관'을 품을 수 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와 '슈퍼맨' 브룩스 켑카(29·이상 미국)가 마침내 외나무다리 위에서 만난다. 최근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둘은 고난도 전장으로 잘 알려진 미국 뉴욕주 파밍데일 베스페이지 스테이트 파크 블랙코스(파70·7459야드)에서 제101회 PGA 챔피언십 우승을 놓고 다툰다.

● '메이저 2연승' 우즈 vs '대회 2연패' 켑카

우즈의 목표는 '메이저 2연승'이다. 지난달 마스터스에서의 감격적인 우승을 다시 한 번 재현해내겠다는 각오다. 부끄러웠던 일탈과 끝 모를 부상으로 필드를 떠났던 황제는 14년 만에 그린재킷을 되찾았다. 이제 남은 목표는 13년만의 메이저 2연승을 이루는 일이다.

2006년 우즈는 7월 디 오픈과 8월 PGA 챔피언십을 제패하면서 메이저 왕관을 차례로 챙겼다. 그해 무려 8승을 거둔 황제의 위업이 절정으로 다다른 대목이 바로 메이저 2연승이었다. 그러나 우즈는 이후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메이저 연승을 추가하지 못했다.

황제에게 도전장을 내민 켑카는 지난 2017~2018시즌을 뒤흔든 차세대 강자다. 탄탄한 체구(신장 183cm·체중 93kg)를 바탕으로 한 장타력을 앞세워 PGA 챔피언십과 US오픈을 연속 제패해 '메이저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번 시즌 역시 더CJ컵@나인브릿지 우승과 마스터스 준우승 등으로 쾌조의 감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ESPN 골프 전문가 17명 중 11명이 켑카를 이번 대회 우승자로 꼽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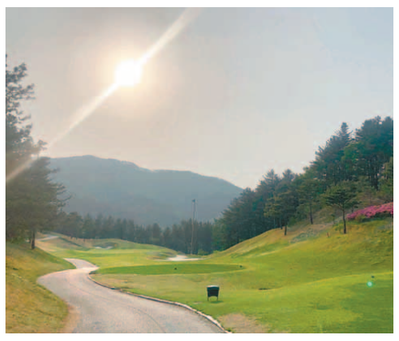
● 악명 높은 블랙코스

다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전장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16일(한국시간) 1라운드를 시작으로 2라운드까지 프란체스코 몰리나리(37·이탈리아)와 같은 조로 편성된 우즈와 켑카가 전투를 벌일 곳은 베스페이지 스테이트 파크 블랙코스다. 7459야드의 장거리 전장이면서도 기준 파가 70에 불과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 골프장 측에서 내건 '이 코스는 매우 어려우니 기술이 뛰어난 골퍼들만 플레이할 것을 권장함'이라는 경고문이 이를 잘 설명한다.

무엇보다 길이가 긴 파4 홀이 많다. 전반 7번 홀은 524야드이면서도 파4이고, 같은 파4 5번 홀과 9번 홀 역시 각각 길이가 478야드와 460야드나 된다. 후반 또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파4 10번 홀과 12번 홀의 길이는 502야드와 515야드로 웬만한 파5 홀 뺨친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우즈가 이 코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우즈는 2002년 이곳에서 열린 US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다. 황제라는 칭호답게 언더파 경기(3언더파 277타)를 했다. 이러한 점 때문인지 우즈는 1라운드 전날 연습을 건너뛰며 여유를 보였다. 과연 암흑의 블랙코스에서 웃을 주인공은 누구일까.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강원도 홍천의 비콘힐스 골프클럽은 가격 경쟁력과 세심한 서비스로 골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그린피 인하와 노캐디 시스템을 곁들인 야간라운드의 즐거움까지 선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 비콘힐스 골프클럽

"착한 가격·야간 라운딩 최고" 홍천 비콘힐스 인기있는 이유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비콘힐스 골프클럽(대표이사 박예식)이 이달부터 진행 중인 야간라운드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그린피 인하와 노캐디 시스템을 통해 알뜰 골퍼들의 입맛을 맞추는 한편 다양한 서비스를 앞세워 주말 골퍼들로부터 만족스러운 평가를 이끌어냈다.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의 홍천읍 높은터로 533에 자리한 비콘힐스는 3305m의 누리코스와 3080m의 하늘코스로 구성돼있다. 해발고도 700m 봉화산 고지대 청정지역에 위치해 한여름에도 상쾌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다.

이처럼 색다른 장점을 지닌 비콘힐스는 봄이 끝나가는 5월부터 야간라운드 상품을 내놓았다. 최대 장점은 부담 없는 가격과 세심한 서비스다.

우선 그린피를 정상가에서 최대 52%까지 할인했다. 주중 기준으로 최저가 8만2000원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또 노캐디 시스템을 도입해 내장객들의 추가 부담을 줄였다. 비콘힐스를 찾는 알뜰 골퍼들은 그린피와 카트피를 선결제한 뒤 진행요원으로부터 카트 이용안내를 받고 야간라운드를 즐기면 된다.

비콘힐스는 저녁식사를 건너뛰고 필드로 나가야 하는 내장객들을 위해 무료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치킨 세트와 도시락, 어묵우동 등 매일 다른 메뉴의 식사가 준비된다.

한편 라운드 편의성을 위해 남성 골퍼들은 반바지 착용이 가능하다. 다만 하의는 기장이 무릎까지 올라와야 하고, 상의는 카라가 있는 셔츠를 입어야 한다. 짧은 양말은 착용 가능하다.

이처럼 알뜰 골퍼들을 비롯해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콘힐스는 야간라운드 개장 이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국내 최대 골프부킹 서비스 XGOLF(대표 조성준) 채널로 올라온 고객 이용후기를 살펴보면 만족도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이달 초 비콘힐스를 찾은 A 내장객은 "3부 야간라운드를 찾아보던 도중 비콘힐스를 알게 됐다. 그린피도 저렴한데 노캐디 시스템이라 기본비용이 추가로 빠졌다. 여기에 저녁도 공짜로 줘 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고봉준 기자

전주페이퍼


빙속여제 이상화 '눈물의 은퇴식'

이상화(30)가 23년간 머물렀던 링크를 떠났다. 이상화는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은퇴식 및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날 그는 "더 이상 최고의 기량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실망해 은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상할 수 없는 부담 속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지만, 입을 떼는 동시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만큼 힘든 결정이었다. 이상화는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의 제왕이었다. 동계올림픽 금메달 2개(2010밴쿠버·2014소치)를 목에 걸었고, 2013~2014시즌에는 36초36의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그의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 이상화 역시 "올림픽 금메달과 세계선수권 우승, 그리고 세계신기록 작성이 목표였는데 모두 이뤘다"며 "언젠간 내 기록이 깨지겠지만 적어도 1년은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비록 나는 떠나도 스피드스케이팅은 그대로다. 다시 비인기종목이 될까 염려도 된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제 그는 산책, 늦잠 등 평범한 일상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 이상화'의 매일도 성실함과 땀으로 가득할 것이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스포츠인권 전문가 초청 대한체육회 워크숍 성료

스포츠733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13~15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2019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 전문강사 선발 및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스포츠인권교육 전문강사 모집에는 160여 명이 지원했으며, 대한체육회는 1차 서류 전형을 통해 지원자들의 경력과 활동계획 등을 평가하여 이번 워크숍에 참가할 80명을 선발했다.

예비 스포츠인권 전문강사들은 워크숍에서 스포츠인권교육 표준교안 및 대상별 교육, 인권의 중요성, 스포츠인권과 법 등 다양한 인권 주제의 강연을 수강했다. 전문강사의 역할과 기대, 활동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 이후 참가자들은 개인별로 약 10분씩 시연 평가를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참가자들의 시연 평가, 교육 참석률, 그룹토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70여 명을 전문강사로 최종 위촉하고 6월부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전문강사들은 거주 지역의 학교운동부, 운동부 팀, 체육 연수기관 등에 파견되어 활동하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상시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스포츠인권교육 전문강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골프여제 박인비 "도쿄서 '황제' 만날 수 있겠죠?"

올림픽서 우즈와 첫 만남 기대

'골프황제'와 '골프여제'가 일본 도쿄에서 만날 수 있을까.

설레는 만남을 두고 '여제' 박인비(31·KB금융그룹)는 "아직 '황제' 타이거 우즈(44·미국)를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1년 뒤 일이지만 조금은 기대가 된다"고 수줍음을 표현했다.

박인비는 16일 강원도 춘천 라데나 골프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조별리그를 마친 뒤 우즈와의 첫 만남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우즈가 내년 7월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 출전 욕심을 드러내면서 역시 참가 의지를 전한 자신과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인비

박인비와 우즈는 최근 약속이나 한 듯 2020도쿄올림픽 출전 의지를 공식화했다. 4년 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나섰던 박인비는 이번 대회 개막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출전 기회가 오면 정말 좋겠다. 아직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고, 우즈 또한 15일 PGA 챔피언십 출전을 앞두고 "한 번도 올림픽을 밟아보지 못했고, 앞으로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내년 대회에서 국가대표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둘은 남녀 경기를 따로 치러야 하지만, 황제와 여제가 만난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우즈의 인터뷰를 기사로 접했다는 박인비는 "100년에 한 번 나오기 힘든 선수가 바로 우즈다. 개인적으로는 우즈가 걷는 길은 언제나 위대하다고 생각한다"며 황제의 도전 의지를 향해 존중을 표했다. 이어 "어제(15일) 먼저 기사를 본 남편이 '우리가 도쿄올림픽에 나가면 우즈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해줬다. 나 역시 선수생활을 하면서 아직 우즈를 만나보지 못했다"며 황제와의 만남 가능성을 기대했다.

다만 우즈와 박인비가 도쿄에서 만나기 위해선 현 세계랭킹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원칙적으로 올림픽 티켓은 국가당 2장이지만, 한 국가가 세계랭킹 15위 안으로 최소 3명을 진입시키면 출전권이 4장까지 주어진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즈와 박인비는 미국과 한국 선수 가운데서 최소 4번째로 높은 순위를 유지해야 한다.

3년 전 경험으로 이를 잘 알고 있는 박인비는 "나와 우즈 모두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또한 출전을 넘어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좋은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을 찾은 박인비는 이날 임은빈(22·올포유)을 6&5(5개 홀 남기고 6홀 차이 승리)로 꺾고 조별리그 2연승을 달렸다.

춘천 | 고봉준 기자